

태국의 에이즈 요양시설

지난 6월 국내 에이즈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태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자 태국을 방문하였다. 태국은 에이즈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에이즈사업을 통해 에이즈에 관련된 시스템이 잘 정비 되어있다.



신수린
본회 사업부장

2003년 6월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의 에이즈 사업을 시찰하고 국내 에이즈사업에 적용하고자 국립보건원 방역과,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함께 사흘간 태국을 방문하였다. 보건부 질병관리센터 에이즈부를 비롯하여 머시센터, 태국 적십자사 에이즈 연구센터, 익명검사소, 탈매춘 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국내 에이즈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 지를 살펴보았다.

10대의 감염률 계속 증가세

태국의 의료행정은 중앙정부 형태이고 많은 NGO단체들이 에이즈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펀드로 대부분의 에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은 1984년 외국에서 돌아온 양성애자 태국인이 첫 감염인으로 보고 되었고, 1985년 2월에 태국인과 미국인 각각 1명이 태국의 출랑롱콘 병원에서 에이즈 양성자로 진단된 것이 태국 에이즈 역사의 시작이다.

남성 동성애자들간의 감염이 1984년에서 1988년 사이에 주로 보고되다 1988년 이후에는 마약사용자들 중에서 유행율이 보고되었다. 1989년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감염이 퍼졌고, 1990년에는 성매매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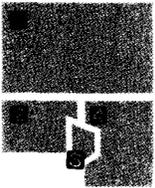
의 손님들 사이에 감염이 발생되었으며, 1991년에는 임신부들이 1992년에는 어린이 감염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였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83%가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가 감염되었고, 5%가 수직감염 그리고 5%가 마약사용을 통한 감염경로를 보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감염경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태국의 에이즈 역학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주로 발생하던 고위험집단이 접대부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이었으나, 현재는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 그룹을 타겟으로 행동변화에 중점을 둔 에이즈 예방 사업을 하고 있었다. 패러다임의 변화도 생겼는데, 즉, '고위험군'이라는 어구 대신에 '고위험 행동'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었다.

에이즈환자만을 위한 요양소

처음으로 방문한 에이즈 쉽터는 호스피스 센터인 머시센터였다. 머시센터는 방콕의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년 전 미국인 신부인 Joe Meyer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 ❶ 룬부리 요양소 내의 가족단위 쉼터
- ❷ ❸ 화장실 문과 벽에 붙어있는 에이즈 예방 포스터들
- ❹ 룬부리 요양소 내에 있는 감염인들의 유골로 만든 조각상

최근 들어, 태국의 에이즈 역학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 주로 발생하던 고위험집단이
 접대부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이었으나, 현재는 십대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 그룹을 타겟으로 행동변화에 중점을 둔 에이즈 예방 사업을 하고 있었다.

Meyer 신부는 아직도 머시센터에서 고아와 에이즈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 이 건물의 구조는 50명의 에이즈 호스피스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35여명의 에이즈 고아와 200명 정도의 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3층짜리 atrium 형태의 건물로 에이즈 호스피스 환자들을 수용한 곳에는 벽이 없이 양면으로 환기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반 이상의 침상이 비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머지 감염인들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대답을 들었다.

남쪽건물의 1층과 2층은 에이즈 호스피스 환자와 에이즈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북쪽 건물은 유치원과 고아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었고, 3층은 식당과 부엌과 세탁소와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용되어있는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들은 결핵에 감염되어 있었고, 호스피스 환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대개 수일 정도이며, 사망한 시체는 24시간 이내에 10분 정도 떨어진 불교사원에서 화장을 한다.

방콕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룬부리라는 곳이 있다. 룬부리는 두가지 이유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한가지는 원숭이가 많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에이즈 요양소 때문이다.

1992년부터 불교 승려인 Alongkot Dikkapanyo 박사가 Wat Phrabat Namphu 사원에서 AIDS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하였다. 이 요양소는 현재 4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나, 점차 그 크기를 130침상 규모로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요양소 지역 내에는 가족단위로 머물 수 있는 쉼터와 호스피스 간호만을 제공하는 35병상 규모의 병원이 존재한다.

이 병원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전혀 없이 간호조무사와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에이즈 환자가 기회감염이 생겨서 병원진료가 필요하게 될 때는 룬부리에 있는 병원에 보내어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그때의 병원비는 무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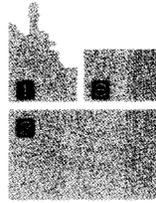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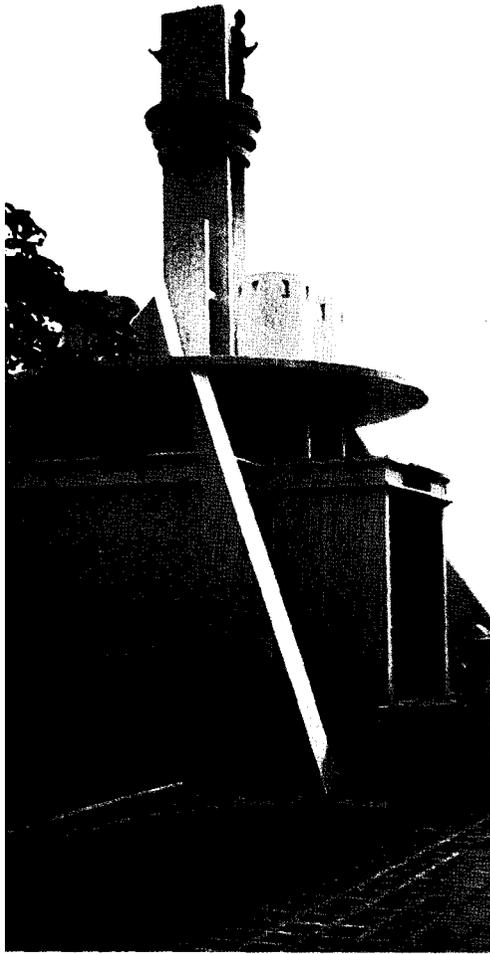
화장터가 이 요양소 내에 마련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매일 2명 이상이 에이즈로 죽어나간다. 이 요양소의 설립 이후에 3,000명 가량이 이곳에서 여생을 마감하였다. 병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그마한 조각공원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돌로 깎은 듯한 조각상이 갈색 빛을 띠고 20여 개 있었는데, 한 감염인의 설명으로 이것은 보통 돌이나 바위가 아니라 화장하고 남은 유골들을 모아서 다른 조각재료와 섞어 감염인들이 만든 조각들이라 하였다.

에이즈 호스피스병원 내로 들어 갔을 때, 병동이 입구의 왼쪽으로는 남성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성들을 위하여 공동 병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몹시 지쳐보이는 환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보인 환자들이 누워있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저리게 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젊어서 생을 마감할 필요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룬부리 요양소를 떠나면서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가졌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희망이 없는 눈동자가 아른거려서였고, 감사한 마음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태국인들에게는 얻기 어려운 치료혜택을 감염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❶ 룬부리 요양소 내 화장터
- ❷ ❸ 에이즈 호스피스 센터인
머시센터

